

연구자료 2004-23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

과제 책임자 : 임 언
집필자 : 노일경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보센터에서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종합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을 통하여 약 31,000여건의 사이버 진로 상담을 제공해왔다. 커리어넷의 사이버 진로 상담은 국내 최초의 전문적 사이버 진로 상담으로서, 현재의 각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이나 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각종 사설 진로 관련 사이트에서 사이버 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기관 및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상담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가이드를 제시해 왔다.

커리어넷의 사이버 진로 상담은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학과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구체적인 진로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제기하는 진로 문제는 상당히 다양하다. 이에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사와 진로 관련 상담자들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문제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자료는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커리어넷의 사이버 진로 상담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진로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다. 모쪼록 이 연구 자료가 사이버 진로 상담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학교 및 기관에서 진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 및 진로 지도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를 개발한 진로정보센터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4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목 차

제1장 개요

- 제1절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안내서 제작 과정 · 3
- 제3절 안내서의 활용 방안 · 5

제2장 사이버 진로 상담의 주요 특성

- 제1절 사이버 진로 상담의 특징 · 7
- 제2절 사이버 진로 상담의 주요 방식 · 9
- 제3절 사이버 진로 상담의 실시 과정 · 10
 - 1. 상담 글 읽고 주요 진로 문제 파악 · 10
 - 2. 진로 문제 유형 및 답변 내용 결정 · 11
 - 3. 정보 수집 및 확인 · 12
 - 4. 답변 작성 · 12
- 제4절 사이버 진로상담시 고려점 · 14

제3장 진로 문제 유형 분석

- 제1절 주요 진로 문제 유형 · 17
- 제2절 진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질문 · 21

ii 목차

1. 직업 정보 · 21
2. 학교 및 학과 정보 · 23

제3절 조언을 요청하는 질문 · 24

1. 자기이해 · 25
2. 진로 의사 결정 · 25

제4장 주요 사이버 진로 상담 사례

제1절 상담 사례 제시 원칙 및 목록 · 27

제2절 주요 상담 사례 · 31

참고문헌 · 93

<표목차>

<표 III-1> 사이버 진로 상담 문제 유형 구분·20

<표 IV-1> 안내서에 수록된 상담 사례 목록·29

[그림 목차]

[그림 I -1]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 제작 과정 · 4

제1장 개요

제1절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누군가와 의논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겪고 있는 고민 중 20~30%가 진로 문제라는 조사 결과(김봉환, 2000)가 말해주듯이 진로 문제는 청소년이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이 진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데는 고도의 고용 불안정과 지속되는 청년 실업의 상황이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기초한 진로 선택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 실시도 이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로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이며, 개인별로 차별적인 관심과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학교 진로교육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서비스가 바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진로상담이다. 사이버 진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

2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

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999년 이래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종합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careernet.re.kr>)을 통하여 사이버 상담을 제공해 왔으며, 2004년의 경우 총 8,000여건의 상담을 사이버 상에서 제공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에서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던 초기에는 국내에서 사이버 진로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사이트였으나, 최근 들어 각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원, 대학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사이버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확대될 추세이다.

이에 사이버 진로 상담의 개척자로서 5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 진로 상담을 통해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문제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상담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기관의 교사 및 진로 교육 담당자들이 진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첫째, 사이버 진로 상담에서 드러나는 진로 문제를 확인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커리어넷 사이버 진로 상담에서 나타나는 진로 문제를 유형별로 확인하고 분석하여 각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의 사이버 진로 상담 접근 방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지난 5년간 진로정보센터에서 실시해 왔던 사이버 진로 상담의 노하우 및 접근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기타 사이버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본 안내서 제작을 통하여 진로정보센터 사이버 상담 내용의 질을 제고하고 상담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기존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진로정보센터의 사이버 상담 내용을 질을 높이고 진로 지도와 관련된 연구에 기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안내서 제작 과정에서 재정비된 분류 체계를 상담 DB

의 재구축 과정에 반영하여 향후 커리어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존 상담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 구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절 안내서 제작 과정

본 안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 기존 상담 사례 내용 분석

커리어넷에 탑재되어 있는 「상담 사례」 및 「사이버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 사례 구성 방식 및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 진로 문제 유형 재구분을 위한 기존 진로 문제 유형 구분 검토

「상담 사례」 및 「사이버 상담」의 체계적 탑재에 기준이 된 진로 문제 유형을 검토하고, 사례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유형을 재 구분하였다.

- 진로 문제 유형 구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회의

진로 문제 유형 재 구분을 위하여 내부 연구진 회의를 실시하였다.

- 대표 사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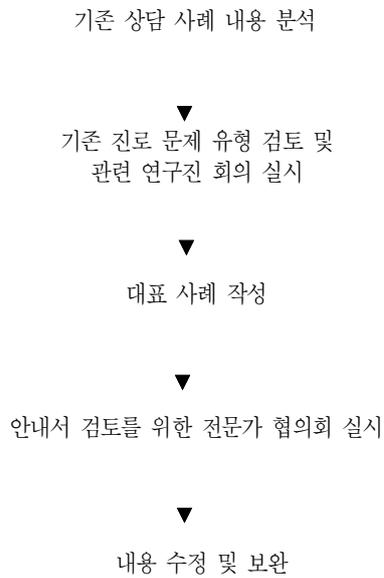
각 유형별 대표 상담 사례를 작성하였다.

- 안내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4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

사이버 진로 상담 관련 전문가 및 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의 타당성 및 유용성을 검토하고, 수정 ·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그림 I -1]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 제작 과정



-
- 1) 회의 일시 : 2004년 11월 5일
회의 참석자 : 허은영(경인중), 정미숙(한강중), 임성민(서초전자고), 이수림(한국청소년상담원), 변미혜(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왕은자(서울대학교 대학원), 은혜경(서울대학교 대학원)

제3절 안내서의 활용 방안

본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는 사이버 진로 상담은 물론 면대면 진로 상담을 실시하려는 교사 및 청소년 기관 관련 담당자들에게 진로 상담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 상담 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진로 상담 시 문제 및 접근 방법을 유용하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개별 사례는 진로 상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안내서의 상담 사례는 커리어넷‘금주의 진로 상담’에 탑재되어, 학생들이 자신이 접하고 있는 진로 문제와 유사한 상담 내용을 스스로 찾아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안내서에 수록된 대표적 상담 사례 내용을 응용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한 후 상담에 이용할 수 있다.

제 2 장 사이버 진로 상담의 주요 특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고 있다. 상담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사이버 공간과 결합한 사이버 상담 체계를 현재 여러 곳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진로 상담의 경우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고유의 특성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로 인해 사이버 상담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제1절 사이버 진로 상담의 특징

일반적으로 사이버 상담은 사이버 공간이 지닌 특성 즉, 시간적, 지리적 편리성, 문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체제,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상담이라는 개인적 문제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일상화시킬 수 있다(김윤희 외, 2002). 이와 같은 사이버 상담의 특성은 진로 상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진로 계획 및 결정에 있어서 인터넷 및 사이버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성에 대해 Harris-Bowlsbey 등(1998)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우선,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 즉 진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진로 정보의 수집에 있어 가장 접근성이 높고, 정보의 양도 많은 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방식, 정보원을 찾아내는 방법, 찾아낸 정보원을 중심으로 진로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역할을 사이버 상담이 맡아 주는 것은 연결의 동시성과 즉시성에서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은 다음과 같이 사이버 진로 상담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

우선 사이버 상담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용이하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사이버 상담을 통한 풍부한 정보 획득은 내담자로 하여금 보다 넓은 조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면대면 상담에서보다 관계 형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고 기본적 상담 관계가 쉽게 맺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표정이나 모습과 같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문자로 표현된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어 상담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감정 정화 기능을 들 수 있다. 사이버 상담은 익명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상대방이나 주위 환경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상담 동기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사이버 상담의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상담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절 사이버 진로 상담의 주요 방식

사이버 진로 상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은 관련 홈페이지에 진로 상담 서비스 코너를 고정으로 설치해 두고 내담자가 게시판에 상담 글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해 놓은 형태이다. 내담자가 올린 상담 글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전문 상담가 뿐만 아니라 상담 코너를 이용하는 다른 내담자들도 답변을 올릴 수 있다. 사이버 진로 상담의 일반적 형태이며 진로정보센터의 공개 상담도 이와 같은 게시판 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은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에 비해 비교적 비밀이 보장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메일 상담은 보통 비공개 상담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게시판 상담에 비해 상담가와 조금 더 긴밀한 관계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이용 정도에 따라 몇 회에 걸쳐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상담 사례(상담 DB)를 이용한 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이나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 내용이 어느 정도 집적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의 형태이다. 기존의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담 코너를 이용한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시판 상담이나 이메일 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 코너

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극히 사적인 진로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대화하는 채팅 상담이 있을 수 있으며, 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화상 상담 또한 면대면 상담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3절 사이버 진로 상담의 실시 과정

사이버 진로 상담은 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될 수 있다.²⁾

1. 상담 글 읽고 주요 진로 문제 파악

○ 상담 글 읽기

내담자가 올린 글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파악한다. 글이 다소 길어도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두 가지일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잘 읽고 글의 주요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 쓴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의 기본 성격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을 잘 들어 주고, 격려해 주는 정도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2) 이 부분의 내용은 2004년 8월에 실시되었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등교원 직무연수-「진로지도의 실제 : 핵심 기법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되었던 '사이버 진로상담(정숙영)'내용 가운데 '사이버 상담 작성 과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핵심 진로 문제 이해하기

내담자의 글을 잘 읽은 후에는 글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 진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글에 나타난 호소 문제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와 그 밖에 부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가려낸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실제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글쓰기 능력이나 방식에 의해 표현을 잘 해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 글을 읽어 가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2. 진로 문제 유형 및 답변 내용 결정

○ 진로 문제 유형 정하기

내담자의 핵심 진로 문제가 파악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상담자가 정해 놓은 진로 문제 유형 가운데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는 실제 매우 다양하고 특성화되어 있지만, 실제 그 중 상당수는 매우 비슷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미리 진로 문제 유형을 구조화하여 구분해 놓으면 상담 답변 시에 이 유형 구분에 따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다.³⁾

○ 답변 내용 결정하기

답변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진로 문제 유형이 파악되었다면 어떤 내용을 중

3) 이 안내서 3장에서는 진로 문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문제 유형에 따라 답변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각 개별 상담자에게 맞는 유형을 새롭게 구성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심으로 답변을 쓸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정보 및 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언을 해 줄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3. 정보 수집 및 확인

내담자가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담자가 답변 내용을 결정할 때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및 자료는 가능한 정확한 것을 찾아서 제공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의 출처 및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을 안내하여 내담자가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담자가 쓴 글 가운데에서도 오류가 있는 정보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답변 작성

주요 답변 내용이 결정되고, 관련 정보도 확인되었다면 마지막으로는 답변을 작성한다. 답변 작성 시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답변 작성의 주요 원칙

· 존중감을 느끼게 해 주는 호칭

호칭은 비록 상담자 보다 어린 내담자라 할지라도 내담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이 들 수 있도록 존칭을 쓰는 것이 좋다(예) **님, **씨). 또한 너무 부정적인 느낌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보다 긍정적 호칭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좋다.(예) '자살', '자포자기' 등의 명칭은 '희망님' 등으로)

- 적절한 답변의 길이

답변은 4~5 단락이 넘지 않도록 하고 보기 좋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 글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글을 너무 길게 쓸 경우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속한 답변 제시

답변은 가급적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질문이 제기된 당일에 답변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사정상 어려울 경우 질문 글을 받고 최대한 2~3일은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 내담자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 포기하거나, 자신이 글을 올린 사실조차 잊게 되기도 한다.

- 내담자에게 친숙한 표현 방식

내담자의 글에서 부정적인 면이나, 고쳐야 할 모습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훈계를 하거나 가르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어법이나 상담 방식 등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사결정의 보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가 직접 결정을 내려주기 보다는 가능한 내담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설령 상담자에게는 명확한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내담자가 그 결정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정도까지만 개입하는 것이 좋다.

- 추후 상담 신청의 가능성 제시

상담 내용이 일회로 끝낼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면 내담자에게 다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 상담 내용이 아니라 하

더라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제4절 사이버 진로상담시 고려점

사이버 진로 상담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Harris-Bowlsbey 등(1998)이나 Kirk(2000) 등은 인터넷을 통한 진로상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윤리적 이슈

ACA(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위한 윤리 기준을 통해 비밀 유지 및 개인 정보 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상담가는 일반적으로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컴퓨터 기술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 줘야 하고, 온라인 상담을 하는 동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 인터넷에 탑재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인터넷에서 제공된 자료와 정보의 질의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이버상담은 온라인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함으로 정보원 역시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 자료의 수준은 사실 천차만별이며 자료의 정확성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자료 사용 및 안내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 이용자들의 컴퓨터 문해(computer and internet literacy) 정도에 관한 문제

사이버 상담을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기술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각 지역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

사이버 상담의 경우 지역적 거리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즉, 경제, 고용, 교육기관 등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제3장 진로 문제 유형 분석

제1절 주요 진로 문제 유형

기존에 구분되어 있는 진로정보센터의 진로 문제 유형은 면대면 상담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 문제를 보다 상세히 보여주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이에 사이버 상담에 적합한 진로 문제 유형을 재구분하게 되었으며, 유형 재구분에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사이버 상담 문제의 빈도 및 내용이 고려되었다.

커리어넷 사이버 진로 상담에서 발견되는 진로에 관련된 질문은 크게 진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정보 요청에 관련된 질문과 진로 의사 결정 및 구체적 진로 계획 수립과 관련된 고민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다 복합적인 심리상의 문제가 동반된 진로 문제가 주요한 진로 문제 유형의 한 부분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보다 대중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본 안내서의 성격상 이와 같은 개인 심층적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진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질문

진로와 관련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질문으로서 답변을 통해서 정보 탐색 기술 및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A. 직업 정보

- 특정 직업의 정보 : 직업에 대한 단순 질문
- 자기이해에 관련된 직업 정보 : 적성, 흥미, 과목, 성격 등 자기이해 과정을 거친 후에 제기하는 질문.
- 유망 직업 정보 :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려는 질문.

B. 학교 및 학과 정보

- 고등학교의 학교 및 학과 정보 : 진학과 관련된 구체적 질문으로서 각 학교 유형별(인문계고, 실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 특징 및 진학 가능성에 대한 질문.
-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정보
 - 직업 관련 대학 학교 및 학과 정보 : 관심 직업이 생긴 상태에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알고자 하는 질문.
 - 특정 학과 정보 및 특정학교 입학 정보 : 대학 진학을 위해 특정 학교, 학과의 정보 및 입학 관련 내용을 알고자 하는 질문.

C. 심리 검사 결과의 해석에 관한 정보 : 커리어넷 진로 관련 심리 검사 내용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질문.

D. 자격에 대한 정보 :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정보를 알고자 하는 질문.

E. 기타 진로 정보 관련 질문 : 7차 교육과정에 관한 질문 등.

◦ 조언을 요청하는 질문

자기이해, 직업탐색,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한 것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 및 진로 탐색 방안에 대한 지원이 상담 답변 작성의 주된 목표이다.

- F. 자기이해 : 주로 진로 및 직업 탐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특성 파악 및 자기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질문.
-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파악
 -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
- G. 진로 의사 결정 :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로서 자기 자신의 이해 부족, 진로 정보의 부족 및 몰이해, 가족과의 갈등, 성적의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질문.
- 고등학교 진학 선택
 - 계열 선택
 -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선택
 - 선택한 진로의 중도 변경 문제
- H. 진로와 관련한 갈등 및 의견 차이 : 자신의 희망과 부모 및 기타 중요한 다른 사람의 기대가 같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의견을 구하는 질문.
- I. 학습 방법 및 성적에 관한 고민 : 성적 부진의 문제 및 구체적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
- J. 기타 조언을 요청하는 질문 : 학교 생활 적응 문제 등.

<표 III-1> 사이버 진로 상담 문제 유형 구분

구분	유형	세부유형	구분*
진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질문	직업 정보	· 특정 직업의 정보	1
		· 자기이해에 관련된 직업 정보	2
		· 유망 직업 정보	3
	학교 및 학과 정보	· 고등학교의 학교 및 학과 정보	4
		· 직업 관련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정보	5
		· 특정 학과 정보 및 특정 학교 입학 정보	6
	심리 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정보		7
	자격에 대한 정보		8
기타			
조언을 요청하는 질문	자기이해	·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 파악	9
		·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	10
	진로 의사 결정	· 고등학교 진학 선택	11
		· 계열 선택	12
		·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선택	13
		· 선택한 진로의 중도 변경 문제	14
	진로 관련 의견 차이 및 갈등		15
	학습 방법 및 성적에 관한 고민		16
기타			

* 주: 구분은 후에 제시될 각 사례 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구분임.

제2절 진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질문

1. 직업 정보

상담 문제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 정보에 관한 질문은 크게 특정 직업에 대한 질문, 교과목, 적성, 흥미, 성격 등 자기이해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질문, 유망 직업 및 미래의 직업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특정 직업에 대한 질문은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직업, TV나 인터넷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직업, 직업적성검사나 직업흥미검사 등 진로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결과로 제시된 직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의 경우 호기심의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질문 또한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예시 1】

직업 중에 철학자라는 직업이 있나요?
 있다면 철학자는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경찰의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다른 직업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두 번째로 과목, 적성, 흥미, 성격 등 자기이해 내용과 관련된 직업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좋아하고 잘 하는데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든지, ‘저는 손재주가 좋고,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에게 적합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첫 번째의 질문들이 단순 호기심과 궁금증의 수준이라면, 이 경우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갖추어진 학

생들이 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나, 자신의 특성과 직업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탐색에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망 직업 및 미래의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이 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직업과 관련된 가치와 관련하여 볼 때, 사회적 인정이 나 보수가 높은 직업들을 추구하고자 하나, 현재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직업이 없을 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이 유망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직업은 설령 유망 직업으로 소개될 지라도 자신에게는 유망 직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직업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직업 세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 제기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예시 2】

요즘 제 목표를 잡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과연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서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 사회에 새로 생겨날 직업들과 없어질 직업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2. 학교 및 학과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외에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 또한 빈번히 제기된다.

우선 고등학교의 학교 및 학과 정보와 관련된 질문들로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의 주요 교육 과정 및 입학 전형 등에 물어 보는 것들이 있다. 특히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있어서 대학 진학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물어 보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와 관련된 학과 정보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과'에 대한 질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중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제 진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학생들이 '과'에 대한 정보를 잘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정보에 대한 질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입시 정보와 관련하여 질문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직업 정보와 학교, 학과 정보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 관심 직업이 뽑혀진 상태에서 보다 실제적인 준비 과정을 탐색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리고 대학 진학이 가까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의 경우는 구체적인 입학 전형 및 입시 정보까지도 연계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

【예시 3】

방금 직업 흥미 검사를 마친 뒤 치과 의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려면 치의학과를 졸업해야 한다면, 관련 학과로는 치의예과가 나와 있더군요. 치의학과와 치의예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시 4】

제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는 **대 경영학과인데요. 물론 경제학과도 좋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고 어떤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 및 학과 정보 또는 입시 정보의 경우 진로 의사 결정 문제와 함께 질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가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로 의사 결정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밖에 진로 관련 심리 검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해석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과 자격 정보에 관련된 질문, 7차 교육과정에 관련된 질문들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조언을 요청하는 질문

구체적인 개별 정보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 커리어넷 사이버 진로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고민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자기이해

【예시 5】

수능을 앞두고 어느 학교를 가야할 지, 어떤 직업을 정해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제가 잘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잘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커리어넷 진로 상담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많이 접하게 된다. 즉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호소이다.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진로 탐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직업 선택은 물론 학교와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비교적 일관적인 탐색 경로를 거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 의사 결정

자기이해 및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학과의 선택 문제는 학생들이 주요하게 결정해야 할 진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더욱 구체적인 수준으로 언급된다. 이는 고등학교의 인문계, 실업계 선택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계열 선택, 학과 및 학교 선택, 그리고 직업 선택의 문제까지 연결된다. 또한 이미 선택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경우 중도에 변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예시 6】

제가 지금 패션 디자인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리고 드럼 학원도 같이 꾸준히 다니고요. 둘 다 계속 하고 싶은데 대학이 문제예요. 실용 음악과를 들어가야 할까, 의상 디자인과를 들어가야 할까, 너무 고민되네요.

이와 같은 미결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앞서 언급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그리고 진로 정보의 부족, 가족과의 갈등, 성적의 불일치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족 및 기타 중요한 타인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진로 의사 결정이 더욱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학교 및 학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학과를 추천해 달라거나, 유명 대학을 소개해 달라거나, 혹은 자신의 점수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알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은데, 이는 학교와 학과 선택을 장기적인 진로 선택의 일부로서 사고하지 못하고 진학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견을 구하는 질문으로는 학습 방법 및 성적에 대한 고민, 학교 생활의 적응 문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 4 장 주요 사이버 진로 상담 사례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진로 문제 유형에 따라 주요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별 접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상담 사례 제시 원칙 및 목록

본 안내서에 포함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제시되었다.

- 유형별 대표 사례 제시

각 유형에 실제 포함될 수 있는 개별 사례의 종류와 수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사례들을 모두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제시하다 보면 내용상의 상당한 중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안내서에서는 각 유형별 주제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대표적 질문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접근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단일 진로 문제 제시

보통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진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본 안내서에서는 하나의 사례 당 하나의 진로 문제만을 부각시켜서 주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물론 이 경우 진로 문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제한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진로 문제 유형별 대표 사례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내용들은 추가하지 않았다.

◦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본래 상담은 다소 개인적인 문제가 부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 안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수한 경험 및 고민은 배제하려고 하였다.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문제 해결 과정을 상세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안내서에 수록된 사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안내서에 수록된 상담 사례 목록

유형	유형 세부유형	사례 제목	구분*
직업정보	특정 직업의 정보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직업정보	자기이해에 관련 된 직업 정보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저에게 어울리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직업정보	유망 직업 정보	유망 직업 좀 알려 주세요.	3
학교/학과 정보	고등학교 학교정 보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4
학교/학과 정보	직업관련 대학 학 교 및 학과 정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과로 가야 하나요?	5
학교/학과 정보	대학의 특정 학과 에 대한 정보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6-①
학교/학과 정보	대학의 특정 학교 입학 정보	눈이 나쁜 데 공군사관학교에 갈 수 있 나요?	6-②
심리 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정 보		적성검사 결과 나타나는 직업과 현재 관심 직업이 다릅니다.	7
자격에 관한 정보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나요?	8

<표 계속>

유형	유형 세부유형	사례 제목	구분*
자기이해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 파악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나, 무엇을 하면 좋을지.....	9
자기이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저에게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0
진로의사결정	고등학교 진학 선택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할지.....	11
진로의사결정	계열선택	계열(문과/이과)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12-①
진로의사결정	계열선택	계열(문과/이과)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12-②
진로의사결정	대학의 학교 학과 선택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13
진로의사결정	선택한 진로의 중도 변경 문제	이과인데 문과 계열의 학과로 가고 싶어요.	14
진로관련 의견 차이 및 갈등	진로 관련 부모와의 갈등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과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달라요.	15
학습방법 및 성적에 대한 고민	성적에 대한 고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너무 부족해요.	16

* 주: 구분은 상담 유형과 각 사례를 연결시키기 위한 번호임.

제2절 주요 상담 사례

사례 1	유형	직업정보
	세부유형	특정 직업의 정보
	제목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중,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학을 가야 하나요? 사범대학을 가야 하나요? 수석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만 잘하면 되나요?

최근 들어 교사가 안정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면서, 교사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는 준비 과정 및 방법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 질문 A)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학을 가야 하나요? 사범대학을 가야 하나요?

우리 나라교육 제도로 보면 교사는 크게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특수교사도 따로 있습니다.

우선 유치원 교사는 2,3년제나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불교아동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복지학과 등을 졸업하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교육대학교는 보통 각 시도별로 1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가 아닌 일반 사범대학 중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역시 동일한 초등교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 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의 사범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학과는, 수학교사는 수학교육과, 영어교사는 영어교육과 등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했을 때(예. 수학 교사가 되려면 수학과, 영어 교사가 되려면 영어영문과 등) 교사가 되는 방법으로는 따로 교직 과목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직 과목은 사범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업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지식과 내용들을 알려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 공통적으로 공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졸업 후 교원임용고사를 봐서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 교사는 교원임용고사를 따로 보지 않아도 되나,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치르는 시험이나 채용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 B) 저는 앞으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수학선생님은 수학만 잘하면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물론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 수학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높은 수학 점수만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육체적 성장을 돕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지식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하고,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크게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등 해당 과목의 지식을 잘 알고,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좋아하고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므로 책임감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커리어넷(<http://careernet.re.kr>)의 직업사전 및 미래의 직업세계**, 또는 **워크넷(<http://www.work.go.kr>)의 직업사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직업사전의 내용은 학생의 학년이나 진로 인식 수준에 따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언어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직업의 내용을 원하고자 할 때는 각 직업과 관련된 협의회 및 관련 사업체의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정보 탐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급적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으며, 교사가 판단하기에 정보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역시 쉬운 말로 자료를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유형	직업정보
	세부유형	자기이해와 관련된 직업 정보
	제목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저에게 어울리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같이 활동이 많은 것을 좋아하고요, 운동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또 주변에서 제가 지리에 밝은 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등 외국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검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예술 분야에 감성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일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은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특성과 관련이 깊은 직업을 찾는 질문이다. 보통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질문할 때는 단순히 어떤 직업의 정보를 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질문과 같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을 물어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일단 거친 후에 직업 탐색을 실시하고자 하는 질문으로서, 단순한 직업의 정보를 묻는 경우에 비해 진로 탐색을 위한 인식이 조금 성숙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A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며, 외국에 관심이 많고, 지리에 밝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특성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얻어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주관적이며 분명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으나, 진로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동기가 높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이 좋아한다는 분야를 살펴보면 일단 여행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 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여행 관련 직업이나 외국 문화 및 사회와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니, 꼭 전문인 체육 분야가 아니라도 레포츠 분야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 실시 결과 예술 분야에 감성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심리 검사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적성이나 흥미 등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관심 있었던 직업이 나오거나, 혹은 관심 갖고 있지 못했던 직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그 직업들을 살펴보고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로 나온 것을 너무 맹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참조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실시 결과 예술 분야에 감성적인 사람으로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홀랜드 진로 탐색 검사를 실시한 듯합니다. 홀랜드 진로 탐색 검사에서 '예술형'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면, 그 학생은 성격적으로는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분방하며,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등에서 소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무대 감독, 작가, 배우, 소설가, 미술가, 무용가, 영상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예능 교사, 사진작가, 가수 등의 직업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 주관적, 객관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직업 탐색을 한다면 범위도 훨씬 좁아지고, 보다 깊이 있는 직업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두 정보를 통해 이 학생에게 적합한 직업을 예상해 보자면, 여행 및 관광 관련 직업, 문화 관련 직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커리어넷 직업사전에서 '여행', '관광', '문화' 등의 키워드를 입력한 후 소개되는 전반적인 직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리어넷의 '문화 관련 직업의 세계'도 문화 관련 직업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직업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직업을 탐색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Information**

✓ 자신의 특성에 대해 진로 관련 검사로 일차적 정보를 얻고 질문을 하는 경우 본문의 내용처럼 우선은 검사 실시 및 해석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검사 결과만으로 자신의 특성 전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에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교사가 해당 검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 홀랜드 검사는 성격 유형에 근거하여 적성, 흥미, 가치와 관련된 직업군 및 직업을 찾아 볼 수 있는 진로 탐색 검사로서, 검사 결과로 제시되는 직업군은 실재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로 RIASEC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홀랜드 검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진로상담연구소의 사이트(<http://www.teensoft.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유형	직업정보
	세부유형	유망 직업 정보
	제목	유망 직업 좀 알려 주세요.

Q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유망하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유망 직업 좀 알려 주세요.

유망직업 및 미래의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은 직업 가치와 관련하여 볼 때, 사회적 인정이나 보수가 높은 직업들을 추구하고자 하나, 현재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직업은 설령 유망 직업으로 소개될 지라도 자신에게는 유망 직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A 매년 매스컴을 통해 유망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망 직업은 현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업과 앞으로 크게 부상하게 될 직업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서의 유망 직업이라 함은 현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업보다는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다른 직업에 비해 수입도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직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 가운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인기를 얻게 될 직업이 있는가 하면, 현재는 인기가 있어도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직업들이 앞으로의 유망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분야에서는 생명공학·나노공학·환경공학 등이 2010년대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생명공학엔지니어, 생물정보학자, 나노전자공학자, 인공지능엔지니어 등이 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자, 나노소재공학자, 광전자엔지니어, 화공엔지니어, 핵물리학자, 초고주파공학자, 항공우주엔지니어 등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분석사, 네트워크설계전문가, 주문형반도체설계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정보보호관리자, 사이버교육운영자, 웹기획자 등이 유망 직업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노인·의료 분야에서도 전망이 높다고 보고되는데, 노인전문의, 노인재활치료사, 노인복지전문가, 가정전문의,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성형 및 미용관련 전문의 등이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 분야의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분야의 기획자, 문화콘텐츠 관련 마케팅전문가, 영화제작자, 방송프로듀서, 방송관련편집 및 제작자, 문화공연기획자, 스포츠마케터, 애니메이터, 시나리오작가, 특수효과기술자, 게임기획자, 캐릭터디자이너 등도 유망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국제법학자, 지역전문가, 통상전문관료, 무역전문가, 동시통역사 등 국제화 관련 직업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 직업들의 대부분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직업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을 잘 파악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유망 직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유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만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 그 일로 성공의 경험을 맛본다면 자신이 스스로 유망 직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유망 직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때 시기 산업 상황과 기술의 발전, 문화의 변동에 따라 유망 직업은 충분히 바뀌어 질 수 있으니, 유망 직업으로 소개되는 직업에 대해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Information**

✓ 유망 직업은 직업 연구를 하는 관련 기관(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므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되는 이들 기관의 발표 내용을 잘 스크랩해 두었다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개별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유망 직업을 소개해주는 것이므로 상담을 청하는 학생에 대한 개별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보다 적합한 유망 직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4	유형	학교 및 학과 정보
	세부유형	고등학교의 학교 및 학과 정보
	제목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Q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내년이면 저도 고등학교에 가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다르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어떤 고등학교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은 데 제가 갈만한 고등학교가 따로 있을까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멀게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고등학교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학생들에게는 더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고등학교의 유형 및 해당 학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 고등학교는 통상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배정되어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은 주로 대학 진학에 필요한 지식과 과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학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계열별로 전공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전공과의 기술과 지식을 익힘으로써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계 특별 전형이나 직업탐구과목 선택 등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유용한 통로들을 많이 허락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고등학교입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는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조리고등학교, 도예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골프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 만약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를 바란다면 조리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은 그 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인기가 높은 분야일 경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진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적합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꼭 진학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

려 있으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요리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는 혼자서 요리에 대한 공부나 실습을 하다가, 대학을 요리 관련 학과로 가던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요리전문학원 등을 수강하면서 해당 전문 기술을 배우더라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즉, 고등학교는 분명 대학 및 그 이후 진로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등학교 과정이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니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하고자 하는 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Information

✓ 각 고등학교의 학교 정보 이외에 실업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에 대한 정보를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이 주로 하게 되므로,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를 졸업할 경우 그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5	유형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정보
	세부유형	직업 관련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정보
	제목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과로 가야 하나요?

Q TV를 통해서 집이나 가게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솜씨를 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과에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를 가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는 어떤 학교에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과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직업과 학과의 관련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특정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를 가야 하는지 쉽게 알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커리어넷의 직업사전과 학과정보, 그리고 학교정보를 연결하여 이용하면 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직업을 직업사전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찾게 되면, 직업사전에 연결되어 있는 관련 학과정보를 통해 곧바로 그 직업과 관련된 학과의 정보를 볼 수가 있다.

A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관련하여, 직업사전에 소개되어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방법

- 1) 정규교육과정
 - 고졸 이상의 학력
 - 2년제나 4년제 대학의 인테리어과, 실내장식과, 건축학과, 장식미술과, 응용미술학과 등의 졸업자 유리
- 2) 직업훈련과정
 - 직업전문학교(건축내장과, 6개월 과정), 사설디자인학원
- 3) 관련 자격증
 -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위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관련 학과로는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인테리어과, 실내장식과, 장식미술과, 건축학과, 응용미술학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유사 학과로 실내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주거환경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도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구별할 때 보통 '**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2,3년제 대학에, 그리고 '**학과'로 되어 있는 것은 4년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학과에서 실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 학과가 속해 있는 대학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학과 정보」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학과 내용에 대한 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학과가 속해 있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후,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 대학, 학과의 분위기 및 실제 입시 정보 등을 파악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실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기 준비도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익대 산업디자인학과의 경우는 미술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능계열로서 정시 모집 때 실기고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학과의 경우는 공학대학에 속해 있으므로 자연과학계열로서 실기고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산업디자인학과는 예능 계열로서 디자인 감각 및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면, 건축학과는 건축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두 학과에서 지향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아울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학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대학을 진학한 후에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 개인적인 노력으로 기술을 보충하여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Information

✓ 대학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정보는 커리어넷의 「학교정보」나 「학과정보」를 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및 산업의 변화에 따라 최근 들어 학과의 명칭 및 교육 과정, 졸업 후 전망 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및 학과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된 내용 및 보다 심화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6-①	유형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정보
	세부유형	대학의 특정 학과에 관한 정보
	제목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Q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다가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배우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학과 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진로 관련 사이트와 각 대학의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커리어넷의 「학과정보」와 「미래의 직업세계 - 학과편」은 해당 학과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A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교육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사회복지 실천 등이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들은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진출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 또는 노인 복지시설, 가정복지시설, 각종 국가기관 등 사회복지에 일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상담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상담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기업의 인사노무실무와 노동정책 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취업률

취업률은 75.6%로 대학교 전체 취업률인 72.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초기에 취업하여 받는 연봉 수준은 1,571만원으로 대학교 전체 학과의 평균 연봉 수준보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과 전망

이 학과 출신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본 학과 전망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청소년 문제의 급증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인의 수요는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nformation

중, 고등학생은 대학의 학과 명칭 및 학문 내용을 매우 생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리어넷의 「학과 정보」 등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연령 및 학년 수준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금해 하는 학과 이외에 관련 학과에 대해서도 찾아 볼 수 있도록 학과 정보의 정보원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준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 탐색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6-②	유형	대학의 학교 및 학과 정보
	세부유형	대학의 특정 학교 입학 정보
	제목	눈이 많이 나쁜 데 공군사관학교에 갈 수 있나요?

Q 저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나쁩니다. 이런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떤 직업은 해당 일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을 요구한다. 그 조건은 때로 자격이나 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체나 건강상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신체 및 건강상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에서부터 그 제한을 두게 된다. 이 학생이 문의한 공군사관학교가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기 조종사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와 같은 제한점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A 공군사관학교가 홈페이지(<http://www.afa.ac.kr>)에서 이 학교의 신체 검사 기준을 제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종자원

- ▶ 대상 : 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조종자원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선발비율 : 남자는 모집정원의 90% 내외, 여자는 80% 내외를 선발
- ▶ 시력 : 나안 0.8이상
- ▶ 시력교정수술(라식, 엑시머 등) : 지원 불가
- ▶ 알레르기성 비염 : 지원 불가
- ▶ 아토피성 피부염 : 지원 불가

우수자원

- ▶ 대상 : 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조종자원 신체검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상근무 공군장교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원자
- ▶ 선발비율 : 남자는 모집정원의 10% 내외, 여자는 20% 내외를 선발
- ▶ 시력 : 나안 0.1, 교정 1.0 이상
- ▶ 시력교정수술(라식, 엑시머 등) : 지원 가능
- ▶ 알레르기성 비염 : 지원 가능
- ▶ 아토피성 피부염 : 지원 가능

* 우수자원으로 입교하였다 하더라도 4학년 2학기 때 비행훈련 입과를 위한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여 통과한다면 비행훈련에 입과 할 수 있음.

조종자원은 항공기 조종을 할 수 있는 사관생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수자원은 항공기 조종은 못하지만 지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관생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경이나 다른 시력 보조 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나안이 0.8 이하가 되더라도 공군사관학교는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종자원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종자원의 경우 시력 교정 수술을 한 사람의 경

우에도 지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식 등을 통해 시력을 회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종자원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안이 0.8 이하 0.1 이상일 경우에는 조종자원으로는 지원할 수는 없지만, 지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우수자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안이 0.1 이하이었던더라도 시력교정수술을 통해 1.0 이상이 되었다면 이 역시도 우수자원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학 지원 자격에 특별한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 각 대학의 입학 정보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 상에서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은 각 대학 입학 관련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Information

✓ 위와 같은 입학 정보 이외에 입시 관련 정보를 원하는 질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 정보를 찾아야 할 지 몰라 무작정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질문에 해당하는 입시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입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유용한 사이트, 입시요강 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다른 대학 및 학과의 입시 정보를 찾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시 정보에 관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ce.or.kr>), 또는 사설 입시 관련 사이트 등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사례 7	유형	심리 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정보
	세부유형	적성 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정보
	제목	적성 검사 결과 나타나는 직업과 현재 관심 직업이 다릅니다.

Q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커리어넷에서 적성 검사를 실시해 보니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나오지 않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들만 제시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와 관련된 능력에서는 보완이 많이 보이고요. 좀 당황스러운데,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하나요? 검사 결과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꿔야 하나요?

자기이해를 하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진로 관련 심리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로 제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검사 결과의 잘못된 이해는 진로 탐색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A 자신의 능력, 관심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이해 방법으로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검사로는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적성검사는 자신이 현재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 능력이 장래 어떤 직업과 관련지어질 수 있을지를 알

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커리어넷의 적성검사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적성 영역으로는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공간시각능력, 신체운동능력, 손재능, 음악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성찰능력, 자연친화력, 창의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다 보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는 전혀 다른 직업이 나오거나,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하위 능력에서 '충분' 보다는 '보완'이 많이 나와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처럼 검사 결과대로 목표 직업을 바꾸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것을 그냥 고집해야 할지 갈등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고, 보다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신이 검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는지, 혹은 현재 자신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나 기타 다른 관련 없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그랬다면 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성검사는 현재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라고 하였습니다. 능력이 라는 것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족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노력하면 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도 역시 담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직업과 관련된 능력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능력을 계속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셋째, 평소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지만, 검사 결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나온 직업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중, 고등학교 때는 아직 흥미가 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다른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니, 자신이 모르고 있던 직업들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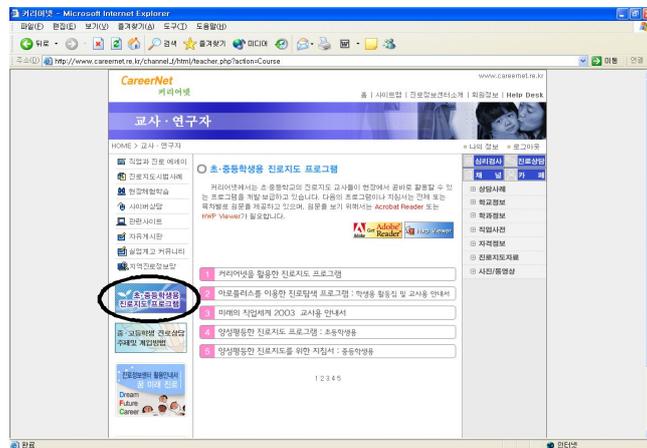
적성 검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진로 관련 심리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검사 점수만을 믿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에 대해 관찰하고 생각한 것,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해 준 것,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다른 흥미 검사나 가치관 검사 결과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진로 관련 심리 검사를 보다 종합적으로 실시해 보고 싶을 경우에는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의 아로플러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Information

✓ 커리어넷에 탑재되어 있는 진로 관련 심리 검사로는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검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해당 검사 첫 페이지에 있는 ‘검사의 특징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의 특징 및 해석 방법에 대해 교사가 우선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진로탐색 프로그램 아로플러스는 기존 개별 검사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보다 종합적인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로플러스 이용 및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커리어넷(교사/연구자 채널 --> 초, 중등학생용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아로플러스를 이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8	유형	자격에 관한 제공
	세부유형	특정 직업 관련 자격 정보
	제목	요리사가 되고 싶은 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나요?

Q 음식을 만드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리사가 되면 어떤 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특별한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건가요?

직업 가운데에는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 정보의 여러 내용 가운데 자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자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안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A 자격은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격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에서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거나, 의사, 간호사, 교사 등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들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 민간 자격은 그 자격과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주는 자격으로

서, 이것 역시 정해진 시험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국가 자격이고 민간 자격인지, 그리고 각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 커리어넷의 「자격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정보 등의 기타 자격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요리사 또한 관련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텔 식당과 같은 전문 음식점이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 요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음식점에서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요리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격증부터 취득하게 됩니다.

요리사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요리의 5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4회 실시하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사 자격시험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여부에 따라 조리장 자격시험과 조리사 자격시험(기능사 2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 단계인 2급 기능사 자격시험의 경우는 학력과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조리장 자격시험의 경우는 일정기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리장의 구체적인 응시 자격은 조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조리 분야에서 1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게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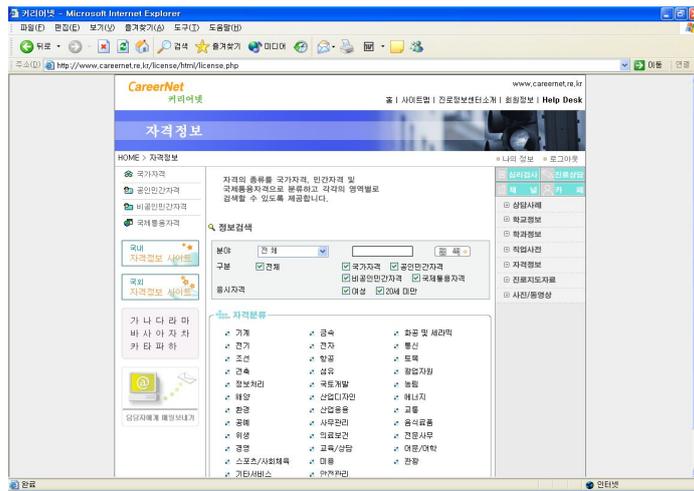
조리사 자격증이나 요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요리 관련 사이

트나, 요리 학원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요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그야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험으로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요리와 같이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자격보다는 오래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가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Information

✓ 자격 정보의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넷의 자격정보



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의 자격정보



사례 9	유형	자기이해
	세부유형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 파악
	제목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나, 무엇을 하면 좋을 지.....

Q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이제 자기의 직업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인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다 결정한 것 같은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를 실시해도 어떤 적성이라고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 애매모호하게 중간 정도로 나오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즉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잘 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자기이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A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진로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천재적인 음악가, 유능한 사업가, 명석한 과학자, 끼가 넘치는 연예인.....남들 보다 앞서 있고, 남들 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신의 직업으로 자아실현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 갑니다. 물론 이런 사람

들은 일찌감치 자신이 가진 능력을 파악하고-혹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발견해 주고-, 그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외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찾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능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것도 분명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처럼 되고자 노력했던 한 소년이 결국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나의 능력은 무엇인지는 누군가가 대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숲 속 이곳저곳을 뒤져보고, 잘못 간 것 같으면 다시 되돌아와 다른 곳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보물도 그렇게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까요?

진로 관련 심리 검사 이용하기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나 소질은 적성검사를, 관심은 흥미검사를, 그리고 직업 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가치관 검사를 통해

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검사는 하나의 '참고 대상'일 뿐 그것 자체가 꼭 믿어야 하는 필수 정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검사 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적성 검사의 경우 각각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살펴보고, 그 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 직업적성검사 실시해 보기

☞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 아로플러스 실시해 보기

자신의 경험 되돌아보기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자신의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도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던 경험, 수상했던 경험, 어떤 일을 하면서 몰두하고 집중했던 경험, 너무 즐거웠던 경험..... 이러한 경험들을 제공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일이 주로 어떤 능력과 관련된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 '잘한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잘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여러 능력 가운데 더 나은 능력'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잘하거나 뛰어나거나 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 물어보기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을 노트 등에 잘 정리해 두고,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을 들어 볼 때는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및 선배 등을 선택한다면 보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 쌓기

관심 있는 영역으로 직접 도전하여 해당 분야의 직, 간접적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의 일이 잘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여러 체험 학습 프로그램,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대학 진학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 인턴사원 등을 통해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로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일까?

물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컨대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소질과 능력을 찾아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통 접할 수 있는 많은 직업들은 꼭 어린 나이에 결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리의 능력은 계속 개발될 수 있고, 흥미라는 것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이어서, 어찌 보면 일찍 진로를 결정해 놓는 것이 남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로 결정의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학교 1학년 때의 진로 결정이 계속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인이 되어 뒤늦게 내린 결정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로 결정의 시기보다 진로 탐색 능력 및 기타 직업 기초 능력들을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갖추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들이므로, 이를 잘 갖추고 있다면 훗날 직접적으로 직업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직업기초능력 : 학습력/대인관계능력/정보활용능력/협동작업능력

 **Information**

✓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을 말합니다. 즉 모든 직업에 공통되고,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보통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통능력 : 읽기능력, 쓰기능력, 듣기능력, 말하기능력, 외국어능력.
- 수리능력 : 사칙연산이해능력, 계산능력, 도표능력.
- 문제해결능력 : 사고력, 문제인식능력, 대안선택능력, 대안적용능력, 대안평가능력.
-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 및 태도.
- 자원활용능력 : 자원확인능력, 자원조직능력, 자원계획능력, 자원할당능력
- 대인관계능력 : 협동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 정보능력 :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정보조직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활용능력, 컴퓨터사용능력.
- 기술능력 :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 조직이해능력 : 국제감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사례 10	유형	자기이해
	세부유형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
	제목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저에게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Q 저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디자인도 해 보고 싶고, 광고 만드는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해서 교사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확실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적합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이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직업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각 직업이 요구하는 여러 능력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A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근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그 일을 자신의 미래에 하나씩 맞추어 보게 됩니다. 때로는 TV에 나오는 멋진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꿈꾸기도 하고, 때로는 책에서 본 젊은 벤처 사업가의 모습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야말로 '상상과 동경'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각각의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 가면서, 꿈꿔왔던 직업이 정말꿈에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계획’으로 바뀔 수 있는지가 조금씩 결정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우선은 여러 방면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 탐색에 긍정적 태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생각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관심 있는 여러 직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광고, 교육 분야에 각각 종사할 경우 주요하게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각 직업에 대한 생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에 대한 감각과 능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한 광고는 특정 사물, 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그리고 교사는 해당 과목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고, 학생들에게 이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능력들이 꼭 학생 시절에 보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학교 교육 과정으로는 이와 같은 능력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서 이런 능력들이 자신에게 있는 지, 없는 지를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세심하게 관찰한다면 후에 본격적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할 시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경험해 보려는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졸업 후에, 또는 대학 재학 중에 봉사활동이나 인턴활동,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해당 일을 경험해 보고,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계속 탐색해 간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적합한 일은 나의 경험을 통해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nformation

✓ 이와 같은 질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 등에 대해서는 「직업사전」 등의 직업 정보를 이용하면 되는데, 직업 정보에 수록된 내용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직업의 내용을 따로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업이 실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사 스스로가 먼저 지식을 갖고 이를 기초로 학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 11	유형	진로의사결정
	세부유형	고등학교 진학 선택
	제목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할지.....

Q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지만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앞으로 내신을 생각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할까요?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목표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은 진로 선택의 주요한 첫 관문으로서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겨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느냐를 두고 자신의 인생이 반 이상 결정된 것처럼 너무 깊게 고민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고등학교 진학이 학생들의 진로가 구분되는 첫 단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진학이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만한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보다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앞으로의 진로 향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

요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주요 과목과 그 과목의 수업 시간 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전공과에 따라 공업, 정보·통신, 농업, 상업, 가사, 전산 등의 전문 지식과 기술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관련 분야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대학 진학을 꼭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겠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이라면 관련 전공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분야로 대학 진학을 시도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보다 치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편이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실업계 학생들의 특별 전형에 도움이 될 만한 곳 :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http://www.passnjoy.com>)

둘째,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자신의 현재 성적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그 이후에는 더 큰 문제에 부딪

힐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는 자신 감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목표 의식도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고등학교 진학 후에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면 먼저 취업을 해서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해 놓은 후에 다시 대학 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의 자신을 억지로, 무리하게 맞 추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상황이 돌아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것입니다.

Information

✓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는 일반계와 실업계 사이에서의 갈등 이외에 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하려면, 각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 및 보다 세부적인 입시 정보 등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 다. 특히 대학 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 특정 고등학교를 선택할 경우 장, 단점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의 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커리어넷의 학교정보와 학과정보를 참고할 수 있 습니다.

사례 12-①	유형	진로의사결정
	세부유형	계열 선택
	제목	계열(문과/이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Q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계열 선택 기간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뀐 입시 때문에 이제는 빨리 진로를 결정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계열 선택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진로의사결정 문제가 바로 계열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부터 2005년도부터는 계열 중심이 아닌 선택 교과 중심의 대학입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계열별로 해당 선택 교과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혼자 입시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계열 선택은 아직도 학생들에게 무거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A 계열 선택은 진로탐색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인문사회계열로 갈 것인지, 자연과학계열로 갈 것인지, 예체능계열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장래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경우 그 전에는 진로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고등학교의 계열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

에 맞닥뜨려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의 진로를 꼼꼼히 탐색해 본 후에 계열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계열 선택은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열 선택은 대학의 학과 선택과 연관되어 있으며, 학과 선택은 궁극적으로 직업 선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은 계열을 선택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업에 대한 탐색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등의 여러 과정을 통해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도움되는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의 요소 : 진로탐색 프로그램 아로플러스, 심리검사, 직업사전

계열 선택은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직업이 몇 가지로 선정되면, 그 직업과 주되게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과 정보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해당 학과가 속해 있는 학교의 입시 정보를 찾아보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선택 과목 등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도움되는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의 요소 : 학과 정보, 학교 정보

특정 직업에 대한 관심이 불분명할 때는 대학에서 각 계열 관련 학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의 차이점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문사회계열

- 1) 일반적 특성 : 부분보다 전체적인 종합을 중시함.
- 2) 학문 성향 : 어떤 사실이나 현상 속에 담겨진 내면의 의미를 추구함.
- 3) 수업 방식 : 각 개인의 창의력, 사회적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위주로 이루어짐.
- 4) 학문 탐구의 자세 : 풍부한 경험과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며,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철학적 개별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규명이 필요함.
- 5) 학문의 성격 : 자료의 수집, 조사와 사색을 통해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 논리적 이론을 찾고자 하는 학문.

자연과학계열

- 1) 일반적 특성 : 합리적, 논리적, 분석적인 것을 중시함
- 2) 학문 성향 : 모든 대상을 수치와 연계하여 보려고 함.
- 3) 수업 방식 :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과 대상에 대한 기능적 측면을 중요시함. 개인 또는 집단적 실험, 실습, 탐사 위주로 이루어짐.
- 4) 학문 탐구의 자세 : 사물에 대한 본질과 법칙을 파헤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출해 내는 끈기가 필요함.
- 5) 학문의 성격 : 실험 기구와 기계 또는 생물 등의 조작과 응용, 실험 등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는 학문.

이외에도 자신의 학업 성적, 신체 및 건강상의 조건, 환경 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이미 계열을 선택

한 학교 선배들과 의논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계열 선택의 과정이 보다 자신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Information**

✓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 입시는 학생들로 하여금 조기 진로 선택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여건은 저마다 달라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각 학교의 실제 선택 교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차 교육과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 계획 및 대학 입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숙지하고, 이와 관련된 질문이 제기될 경우 상세히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이나 교육과정정보서비스(<http://www.knci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2-②	유형	진로의사결정
	세부유형	계열 선택
	제목	계열(문과/이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Q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한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과 쪽 공부에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수학이요. 좋아하기로 치자면 문과 쪽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과 쪽에는 관심 가는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문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이과로 가야할까요?

계열 선택에 관한 첫 번째 상담 내용(12-①)에서 계열 선택은,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과 관련된 학과 그리고 그 학과와 관련된 계열을 선택하는 일련의 진로 탐색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직업이나 학과 등을 먼저 고려하고 그에 적합한 계열을 선택하는 과정을 제대로 밟아 계열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위의 질문과 같이 관심 있는 직업 및 학과의 계열과 현재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의 계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 및 학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의 경우 꿈이 한의사라고 했는데, 왜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자신이 한의사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

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은 그저 머리 속에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즉 한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적합한지, 또 공부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한의사가 되고 싶으나, 실제 자신이 한의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관심 있는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의 요소 : 아로플러스의 '관심 직업을 통한 진로 탐색' 과정

관련 과목 점수의 잘하고 못하는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저 꿈을 갖는 것과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현실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의사가 되고 싶은데, 수학 성적이 또는 과학 성적이 다른 문과 계열 성적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성적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체의 흥미가 상당히 낮다면 더욱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는 낮은 성적도 충분히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되므로 미리부터 포기하지는 말고, 꼭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당 과목의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계열의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이과 계열의 과목 보다 문과 계열의 과목이 훨씬 더 재미있고 좋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문과 계열의 직업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경우 대부분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

업이나 학과의 범위가 비교적 좁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직업에 국한되어서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의 세계는 상당히 다양하며,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분야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의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보세요. 의외의 분야에서 관심 있는 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의 요소 : 직업사전 / 미래의 직업 세계 / IT 직업의 세계 / 문화 관련 직업의 세계 / 환경 관련 직업의 세계

 **Information**

✓ 학교, 학과의 선택, 그리고 계열의 선택 등은 원칙적으로 진로 탐색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진로 탐색의 과정이 학력의 위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이나 선호 교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진로 탐색의 원칙과 현실적 한계점을 잘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13	유형	진로의사결정
	세부유형	대학의 학교 학과 선택
	제목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고3입니다. 좋은 4년제 대학에 갈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이럴 때에는 차라리 전문대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는 컴퓨터나 정보 통신 분야로 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4년제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전문대를 나오면 좀 나을까요? 그래도 전문대보다는 4년제가 나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는 고민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그러므로 고민에 대한 접근 또한 보다 현실적인 것이 좋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 내려 줄 수는 없지만,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장, 단점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A 가고 싶은 학과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데, 성적이 여의치 않아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은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는 주로 1, 2학년 동안은 대학 교양 및 학과의 기본

지식을 배우게 되고, 3, 4학년에는 자기 과나 전공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대는 주로 1학년 때부터 자기 과나 전공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이론과 실기에서의 비중에서 전문대는 실기의 비중이, 4년제는 이론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내용이 이론 중심적인지, 실제 중심적인지가 결정하는 데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선택에 있어서 졸업 후의 진로나 전망 등의 차이점도 중요한 고민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무 내용이 주요하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 및 기능이 필요한 분야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문대학 졸업자가 유리할 것이며, 일반 사무나 관리의 내용을 필요로 하거나, 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라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컴퓨터나 정보 통신 쪽이므로 전문대학을 진학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듯 보여 집니다. 해당 분야의 성격상 지식과 기술을 보다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보다 빠른 시기에 직업 생활로 진출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혹시 졸업 후에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4년제로의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거나,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양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남은 기간 조금 더 노력하셔서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경우들을 잘 고려하셔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 후에 남게 되는 여러 미진한 점은 매시기 최선의 노력으로 메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Information**

✓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갈등 이외에 실제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또는 어떤 학과를 갈 것인가는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절박한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진로 탐색의 원칙과 현실적 한계점' 사이의 신중한 선택을 제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단순히 점수만을 보고 근시안적으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서도 안 되지만, 실제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진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4	유형	진로의사결정
	세부유형	선택한 것의 중도 변경 문제
	제목	이과인데 문과 계열의 학과로 가고 싶어요.

Q 언젠가부터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자나 아나운서 등에 대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과이거든요. 기자나 아나운서 등 방송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신문방송학과를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신문방송학과는 문과 계열의 학과이잖아요. 제가 지금 문과 계열의 신문방송학과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방송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요.

이과에 있는 학생이 문과 관련 직업을 희망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한 가지가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이며, 또 한 가지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충실한 직업 정보이다.

A 우선 이 학생은 이과 학생이 문과 계열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입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2005학년도부터의 대학 입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①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원칙적으로 없어졌습니다.
- ②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 등을 모두 수험생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였습니다.
- ④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중 한 영역만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원칙적으로 계열 구분은 없어졌으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 학과의 선택 과목에 의하여 학생 스스로가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과 학생도 원칙적으로 문과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단, 문과 관련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선택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만약 문과 관련 선택 과목(대표적으로 사회탐구)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열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2학년 때부터는 계열별로 선택 과목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2학년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과학 탐구를 주로 배우던 이과 학생들은 사회 탐구과목을 처음부터 배우기가 아무래도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생활기록부 성적, 즉 내신 성적에서 선택 과목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더더욱 자격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번 정해진 계열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려우며, 다른 계열의 시험을 치르기도 곤란해집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정해 놓은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에 앞서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몇몇 대학 및 학과의 입시요강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잘 맞는 학교 및 학과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무엇보다 각 학교의 입시요강을 세밀하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대학별 입시요강을 동시에 찾아 볼 수 있는 곳 :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

만약 대학 진학을 통한 방법에서 장애물을 발견했을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관심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경우 수능시험을 문과로 치르지 못할 경우 방송 관련 직업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직업들이 인문계, 자연계 등의 계열 구분 없이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의 전공보다는 해당 직업에 필요한 능력, 경험, 지식 그리고 관심 등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공채시험 등을 통하여 전공에 상관없이 적격자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생이 되고 싶어 하는 기자나 아나운서의 경우에도 전공에 상관없이 방송사나 언론사 공채 시험을 통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고 해당 직업으로 입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또한 신문방송학과 등 관련 학과로의 진학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면 대학 진학 후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또는 대학원으로의 진학 등의 방법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각 대학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직업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한번 결정된 것이 평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되, 만약 만족스럽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찾으려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 **선택한 것의 중도 변경 문제**로는 위의 계열 변경 이외에도 학교 전학이나 대학 진학 후의 재입학 및 편입 등의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택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포기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의 입시 정보**

각 대학의 입시 요강 및 대학 입시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5	유형	진로 관련 의견 차이 및 갈등
	세부유형	진로 관련 부모와의 갈등
	제목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과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달라요.

Q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미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특히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미술은 취미 활동으로만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진로 문제는 부모에게 큰 관심사이다. 그래서 종종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갈등은 특히 학생이 관심 갖는 직업이 안정성을 갖기 힘들 때 더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학생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진로 갈등 상황을 풀어 나가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A 부모님들은 이미 한, 두 번의 진로 선택의 과정을 거친 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 나가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온전히 현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들 자신들의 경험에 빚대어 어떤 일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고, 어떤 일을 하면 조금 더 힘들 거라는 것에 대해 기준을 갖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자신

들의 자녀들은 조금 더 쉽고, 안정된 일을 갖게 되길 원하십니다. 자식들에게는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세상을 보고, 그로 인해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젊은 패기와 강한 의지는 설령 어른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기필코 도전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님과 젊은 세대들 간의 진로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은 위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왜 다른 직업을 추천하시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자신의 자녀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각자의 다른 입장들은 어느 정도 좁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실제로 안정적인 직업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에 있어서 몇몇의 고액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수습 시절부터 적은 수입과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직업이든 그 정도의 어려움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안정적인 직업에 비해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는 데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과 강한 포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관심 수준이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림과 관련된 직업을 찾는 정도라면 그림과 관련된 조금 더 안정된 직업을 찾아보는 것은 어

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계통이나 인테리어 등은 그림과 관련되면서도 애니메이션 분야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미술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직업 탐색의 과정을 거쳐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추천하시는 직업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자신과 어떤 부분에서 잘 맞지 않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Information

✓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그 일에서 안정과 고소득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재 안정적이고 고소득인 직업이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고소득이고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학부모 상담 등에서 이런 내용들이 발견된다면 이와 같은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16	유형	학습 방법 및 성적에 대한 고민
	세부유형	성적에 대한 고민
	제목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너무 부족해요.

Q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 공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자가 되려면 자동차 학과나 기계공학과를 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기에는 성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포기를 하고, 다른 진로를 계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은 희망이라도 부여잡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로 목표가 나름대로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단계를 거쳐 자신의 진로 과정을 추진하게 되므로, 사실 대학 진학은 진로 계획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만큼 충분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학생을 고민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때 교사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해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 하고 싶은 일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가고 싶은 학과와 학교까지 다 결정이 되었다면 일단은 진로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계획을 진행시킬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그 계획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자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부각되는 것이 '성적'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 직업 및 학과에 따라서는 비록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대학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나름대로 대학의 서열화가 지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성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고민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우선 하고자 하는 분야가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차 관련 학과나 기계 공학 관련 학과로 진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령 가고자 하는 학교보다 성적이 낮은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당 분야에서 인턴십 기회도 쌓는다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보다는 과를 중심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꼭 특정 학교, 특정 학과를 가야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은 그 학교, 학과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의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쓸 때까지도 그 성적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한번 더 시험을 치를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것

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Information**

✓ 성적 고민과 함께 많이 제기되는 것이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 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되살려 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은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이 볼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봉환 외(2000).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윤희 외(200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상담체계 모형 구축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대한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 _____(2003).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 임 언 외(2004). 「진로정보센터 운영(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 이영선, 김지은(2000). 「사이버진로상담; 이메일상담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 중등교원 직무연수 자료집 - 「진로지도의 실제 : 핵심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Harris-Bowlsbey, J., Dikel, M. R., Sampson, J. P.(1998). *THE INTERNET: A Tool for Career Planning*.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 저자 약력

- 임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노일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사이버 진로 상담 안내서

- | | |
|-----------|--|
| · 발행연월일 | 2004년 12월 일 인쇄
2004년 12월 일 발행 |
| · 발 행 인 | 김 장 호 |
| · 발 행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 · 인 쇄 처 | 정문출판 (02)2269-9301 |
| · 등 록 일 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 록 번 호 | 제16-1681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매 품>